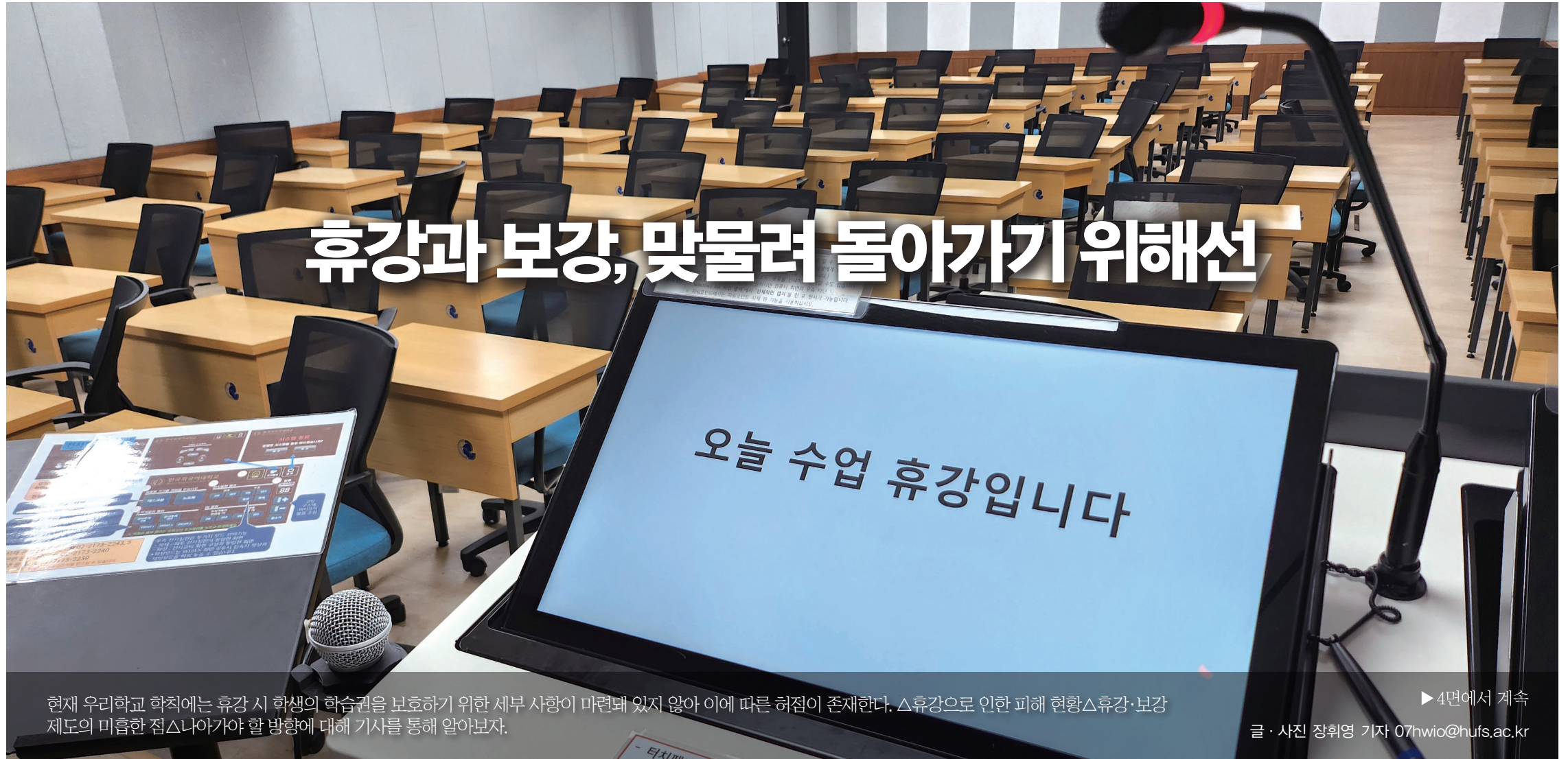


[기획] >> 5면
주차장 공간 부족

[기획] >> 7면
전산 실습실 문제

[사회] >> 8면
의대 정원 확대

[인물] >> 12면
김미경 변호사를 만나다



휴강과 보강, 맞물려 돌아가기 위해선

오늘 수업 휴강입니다

현재 우리학교 학칙에는 휴강 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따른 허점이 존재한다. △휴강으로 인한 피해 현황△휴강·보강 제도의 미흡한 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기사를 통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글 · 사진 장휘영 기자 07hwio@hufs.ac.kr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한-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난달 28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HK+사업단은 인도 뉴델리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 (Jawaharlal Nehru University)에서 우리나라와 인도 양국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인도 관계의 위대한 전환(Great Transition in India-Korea Relations: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Friendship)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HK+사업단은 인도 및 남아시아 지역에 관한 △연구 역량 강화△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연구소의 국내·외 이미지 제고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성△개방성△투명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연구와 5대 전략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선 △베트남△인도△일본△우리나라△태국△필리핀 등 6개국 출신의 30여 명으로 구성된 인도학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가해 △문화△정치△경제 등 우리나라와 인도의 관계와 관련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째 날엔 △우리나라와 인도의 문화적 관계△인도 테평양 시기에 우리나라와 인도의 정치적·경제적 관계△우리나라와 인도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지는 두 번째 날에선 급변하는 시기의 인도의 외교 정책과 우리나라-인도 관계의 회고와 전망 그리고 △베트남△일본△태국△필리핀 학자가 바라본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의 국제 역학적 관계를 논의했다.

김찬완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소장은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우리나라와 인도의 관계에 대한 간학문적 접근을 통해 이해를 고양하고 대화와 협력을 위한 자원을 확장함으로써 두 나라의 관계를 굳건히 다지고 미래의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술 기자 07yusol@hufs.ac.kr

우리학교, 엘지유플러스와 글로벌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해

지난달 6일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이하 박 총장은 서울캠퍼스아하 설캠대학본부 이덕선 회의실에서 황현식 엘지유플러스(LGU+) 대표이사이하 황대표와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선 취업박람회장 플랫폼 구축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협력이라는 의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엔 박 총장을 비롯해 △김민정 설캠 학생-인재개발처장△오세홍 글로벌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오종진 대외협력처장△윤성우 교무처장△정태엽 재무-대외부총장△정석오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또한 엘지유플러스에선 황 대표를 주축으로 임정혁 전무와 전승훈 상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는 우리학교의 지역학 기반 전문성과 엘지유플러스의 메타버스 플랫폼 유버스를 결합해 미래 신사업 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체결식을 발판 삼아 세계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학교 재학생 박하은(아시아·미언어 23) 씨는 “우리학교의 강점인 외국어와 메타버스 기술이 융합된다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엘지유플러스에선 지난달 27일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주관하는 ‘Hufs글로벌직무박람회’를 개최했다. 또한 ‘동문선배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화상 공부 모임 ‘스터디잇미(study with me)’를 진행했다. 나아가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연간 약 10여 명의 우리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관련 현장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해 미래 신사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박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우리학교의 강점인 세계화·외국어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인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도 빼어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화 네트워크 및 지역학 자산을 엘지유플러스와 공유해 양 기관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전 세계 메타버스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대표는 “우리학교의 메타버스 캠퍼스가 세계적인 대학들의 메타버스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세계적인 결연대학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지윤 기자 07jiyoon@hufs.ac.kr



우리학교,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 기념 새공공영상문화유산정책포럼과 공동 행사 개최해

지난달 27일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에서 우리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는 새공공영상문화유산정책포럼(이하 영상유산정책포럼)과 공동으로 '2023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선 시기적으로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오늘의 우리나라를 이룬 '우리 생활'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영상자료원을 비롯해 영화 '위저링에서 만납시다'의 제작사인 태흥영화주식회사와 아카이브 전문기업 알렘소프트(Rmssoft) 등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유네스코(UNESCO)와 세계영상아카이브협회협의회(CCAA)는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에 전 세계 90여 곳의 시청각 아카이브 기관에 함께 모여 시청각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전문가와 기관의 활동을 기억하기 위해 귀중한 자료의 취약성을 강조하고 이를 미래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응원하는 행사를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해는 지난해에 이어 '세상을 향한 당신의 창'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의 일상을 기록하는 사진과 영상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는 이날을 기리기 위해 영상유산정책포럼과 공동

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에 영화 '위저링에서 만납시다'를 상영하고 주요 박물관 학예연구사들을 초청해 '한류와 시청각유산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대담을 진행했다.

1부에서 상영된 영화 '위저링에서 만납시다'는 음악 영화로 1980년대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참가자들은 당시 고급 무대로 알려져 있던 위저링 쇼와 함께 △시민화관△젊은이들이 드나들던 명동의 뮤직홀△호텔 나이트클럽△KBS TV쇼 스튜디오 등을 배경으로 대중가요 쇼를 관람할 수 있었다.

2부에선 영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Victoria and Albert Museum)을 비롯한 다양한 한류 관련 전시 관람에 이어 최근 우리나라 전시에 참여한 학예연구사들을 초청해 전문가 대담을 진행했다. '한국대중음악사 개론' 등을 저술한 장유정 단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시작해 권기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이하 권 연구사)와 나훈영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이하 나 연구사)가 한류 및 우리나라 대중문화 관련 전시기획과 시청각 유산에 관한 고민을 전했다. 권 연구사는 지난 7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우리가 사랑했던 [], 그리고 한류' 전시를 기획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한류 관련 전시로서 주목받은 바 있다. 나 연구사는 다음 달 공개되는 상설 전시 '한국인의 오늘(가제)'을 준비 중이다. 두 학예연구사와의 대화를 통해 문화유산 제도 안에서 우리 세대가 보존해서 전승해야 할 시청각 유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노명환 소장은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 행사는 지난 2019년에 본 연구소가 영상유산정책포럼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기념행사를 개최한 이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사진·음성·영상 기록의 가치를 알리는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 대중문화와 관련된 시청각 유산의 가치를 시민들이 되새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유솔 기자 07yusol@hufs.ac.kr

우리학교, 주한 폴란드 대사관과 공동으로 폴란드 비드고시치 민속예술단 초청공연 개최해

지난달 11일 박정운 우리학교 총장(이하 박 총장)과 최성은 폴란드어과 학과장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 위치한 국제세미나실에서 주한 폴란드 대사관 및 쿠아비-포모제(Kujawsko-pomorskie)주와 공동으로 폴란드 비드고시치(Bydgoszcz) 민속예술단을 초청해 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의 주제는 '아름다운 우리 폴란드'로 다양한 폴란드의 민속춤과 노래가 소개됐다. 6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비드고시치 민속예술단은 단장인 엘지비에타 코르나세프스카-로가츠카를 필두로 △무용단△실내악단△합창단 등 16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공연단이다. 해당 공연단은 상하이와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 엑스포 축하공연을 비롯해 △남아프리카△오만△유럽 전역△인도△브라질△페루 등 다양한 지역의 축제에 초청돼 세계적으로 그 예술성을 공히 인정받고 있다.

비드고시치 민속예술단은 폴란드 전통의상을 세 차례나 갈아입을 정도로 다채롭고 화려한 무대를 펼쳐 관중들로부터 열띤 찬사를 받았다. 특히 이번 공연엔 우리학교 학생뿐 아니라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Piotr Ostaszewski) 주한 폴란드 대사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폴란드 교민들 또한



▲민속예술단 초청공연 기념 촬영 모습 (출처: 전략홍보팀)

참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안성용 모현음장을 비롯해 글캠 인근에 거주하는 경기도 용인의 시민(이하 용인시민)으로 구성된 200여 명의 관중이 폴란드 민속춤과 노래 가창을 관람하기도 했다.

공연이 끝난 뒤에 실내악단장이자 심리치료사인 안나 노가이 박사가 '음악

이 뇌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으며 우리학교 폴란드어과 민속춤 동아리 '미주르카' 학회원들이 비드고시치 예술단으로부터 민속춤을 배워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용인시민들 또한 무대에 올라 다 함께 손을 맞잡고 춤을 추기도 했다. 이번 공연은 대학이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문화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우리학교 폴란드어과는 국내에서 폴란드어를 전공할 수 있는 유일한 학과로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와 폴란드 간 교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폴란드어 전문 인재를 육성해 왔다. 이번 행사는 주한 폴란드 대사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해 온 우리학교 폴란드어과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김용덕 우리학교 동유럽학대학 학장은 "우리나라의 최대 방산 수출국이자 2차 전지 배터리 생산기지이기도 한 폴란드는 유서 깊은 역사를 보유한 문화강국이다"며 "이번 콘서트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제대로 소개되지 못했던 폴란드 전통예술의 정수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향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지윤 기자 07jiyoon@hufs.ac.kr

조경순 우리학교 교수, 제16회 반도체의 날 기념 국무총리 표창 수상해

지난달 26일 조경순 우리학교 전자공학과 교수(이하 조 교수)가 더케이호텔(The-k hotel) 서울 그랜드볼룸(Grand Ballroom)에서 열린 제16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반도체 산업협회에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반도체의 날'을 제정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조 교수는 반도체 분야에서 △국책사업단 및 학술 활동을 통한 관산학연 연구개발 기반 구축△기술 개발 및 산업적 측면△인력 양성 및 교육적 측면의 공헌을 인정받아 이번 해 반도체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조 교수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및 석사와 지난 1988년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교(Carnegie Mellon University)에서 전기 및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엔 지난 1994년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수석연구원으로 ASIC 설계자동화 및 셀

라이브러리(cell library) 연구개발을 담당했다. 이어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공과대학 학장을, 지난 2014년부터 2016년에 산학 연계부총장을 역임했다. 이와 병행해 산업계 활동으로 △다윈텍(Tec)△동부하이텍(Hitec)△라디오펄스(Radio pulse)△엔타시스(Entasis)△코아로직(Core Logic)△코아시아(Coasia)△ECT 등 다수의 반도체회사의 △감사△기술고문△사외이사△연구소장을 역임했다. 학회 활동으로 대한전자공학회 반도체소사이터 연구담당부회장과 국제학술대회 ISOC의 대 회장을 역임한 바가 있으며 지난 2018년에 제1회 반도체산학연교류워크숍 대회장을 맡기도 했다. 대형 국책사업을 이끄는 역할도 담당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 사업단 SoC설계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 위원과 ICT원천연구개발사업 추진 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지유솔 기자 07yusol@hufs.ac.kr

우리학교 미디어외교센터, 월간 동북아 이슈 보고서 발표해

지난 9월 22일 우리학교 박정운 총장(이하 박 총장)과 채영길 미디어외교 센터장(이하 채 센터장)은 월간 동북아시아(이하 동북아) 이슈 보고서 9월호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한 달간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언론의 우리나라 관련 보도를 취합한 후 각국의 언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해 보도의 주요 주제와 숨겨진 의미 구조 등을 밝혀낸 내용이다. 주요 3개국 언론에서 우리나라 담론이 형성되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보고서의 주목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중국은 해당 의제에 반발하는 정치권이나 시민의 목소리를 자국에 전달함으로써 자국의 입장에 타당성을 부여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우리나라 정부 측의 입장을 근거로 방류의 정당성에 초점을 두는 보도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반 견해보다는 해당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각국 간 이해관계와 국제정치적 역학의 모습에 관심을 두고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다른 공동 이슈인 캠프데이비드(Camp David) 회의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3국 동맹에 높은

의미를 부여했다. 동시에 한·미·일 공조를 공고히 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동맹이 미치는 영향력과 주변 국가의 반응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과 갈등을 조장하는 미국의 행태를 비판하며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를 통해선 결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중심의 이러한 삼각공조 강화를 '미니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로 칭해 미국의 패권 다짐으로 인해 지역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보도를 낸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채 센터장은 이번 월간 동북아 이슈 보고서 9월호의 분석 결과에 대해 "동북아 지역에서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한·미·일 삼국 동맹의 강화 등과 같이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다양한 국제적 화제가 등장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동북아 미디어 공론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여론의 실체를 이해하고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윤 기자 07jiyoon@hufs.ac.kr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4학년도 전기 모집

국제지역대학원 2024학년도 전기 모집

◎ 석·박사 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구분	모집일정
원서작성 및 서류접수	원서작성: 2023. 11. 7(화) ~ 11. 16(목) 서류접수: 2023. 11. 7(화) ~ 11. 17(금)
전형일	2023. 12. 2(토)
합격자 발표	2023. 12. 15(금)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나. 유엔평화대학 이중학위 프로그램 운영(국제학과, 한국학과, 중남미학과, 유럽연합학과)

다. 3+1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취득)

라.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마. 졸업 후 많은 동문들이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노후 건물 해충문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선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는 산지에 위치해 있어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 비해 건물 내부로 해충이 더 많이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해도 글캠의 해충 문제는 심각한 편이다. 해충 문제는 학생들의 위생과

안전이 직결돼있는 만큼 글캠의 해충 문제는 시급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을 위협하는 글캠의 해충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해충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글캠 학생들

현재 우리학교 글캠은 왕산에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상 글캠 내부에선 여러 야생 생물들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또한 캠퍼스를 관통하는 작은 개천이 흐르고 있어 곤충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글캠은 설캠에 비해 해충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글캠의 건물 중 일부는 이런 해충 문제에 대해 매우 취약한 상태다.

글캠의 여러 건물을 돌아보며 벌레가 발생하기 쉬운 창문 근처에 있는 해충의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글캠에서 가장 해충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물은 △공학관△교양관△후생관이었다. 이 세 건물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는 바로 방충망이 부재한다는 것이다.

먼저 공학관의 경우 복도에 위치한 창문은 방충망이 잘 설치돼 있었지만 1층을 제외한 많은 공학관 강의실엔 방충망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학관 남자 화장실의 경우 방충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방치된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방충망 끝부분이 찢어져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 구멍을 통해 유입된 벌레들의 사체가 화장실 창틀에 쌓여있는 등 전반적으로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공학관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조권휘(공과•컴퓨터 18) 씨는 “글캠은 명수당을 시작으로 캠퍼스 끝까지 이어지는 개천이 있는데 날씨가 따뜻할 때면 이 개천에 날벌레들이 대거 번식한다”며 “공학관 고층은 그나마 해충의 유입이 적은 편이지만 저층은 날파리와 모기들의 유입이 심하다”고 토로했다.

교양관 역시 방충망이 부재한 상태였는데 교양관의 경우 산지와 바로 맞닿아 있는 위치적 특징 탓에 수많은 곤충들이 건물 내부로 유입됐다. 단적인 예시로 지난달 맹독성 쌍살벌 다수가 교양관 창문을 통해 무리를 지어 들어와 학생들을 위협했던 사례가 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자 겨울을 나기 위한 풍뎡이 수십 마리가 천장에서 기어 다니는 모습이 보여 학생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교양관의 지속적인 해충 유입에 대해 평사원(冯思远)(인문•사학 23) 씨는 “방충망이 설치돼 있는 인문경상관에 비해 교양관엔 많은 해충들이 유입되고 있다”며 “말벌과 같이 큰 독충이 들어올

때마다 위협을 느낀다”며 교양관의 해충 유입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후생관의 사정 또한 마찬가지였다. 후생관은 △교직원식당△카페△학생식당 등이 위치한 건물로 학내 구성원들이 식사하는 곳인 만큼 위생이 중요한 장소임에도 후생관 창문엔 방충망이 존재하지 않았다. 후생관 옆에 모기나 날파리가 많이 발생하는 개천이 있다는 점과 지금은 제거됐지만 최근까지 후생관 근처에 말벌집이 존재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후생관에 방충망이 부재한 것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위생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승재(인문•사학 23) 씨는 “밥을 먹다 보면 종종 말벌이나 파리가 보인다”며 “우리 학교가 산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벌레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식당만큼은 벌레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며 후생관 위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설캠의 경우 대부분의 건물에 방충망이 잘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에 위치한 특성상 건물 내부로 벌레가 유입되는 일은 드물었다. 사회과학관을 이용하는 명나디(일본•용일지 21) 씨는 “사회과학관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벌레를 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설캠의 경우 방치되기 쉬운 건물 지하나 구석의 방충망 역시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려있지 않는 등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글캠 내 노후화된 건물들이 지니고 있는 해충 관련 문제점들은 학생들의 △안전△위생△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특히 방충망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글캠에서 방충망이 잘 설치돼있는 △백년관 △인문경상관△어문관△자연과학관 등에선 해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어문관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이 건물에서 벌레 발견하기는 어렵다”며 교양관이나 공학관으로 가서 취재를 해볼 것을 권유했고 어문관에서 주로 수업을 듣는 김태황(동유럽•체코어 23) 씨도 “산과 인접한 어문관 뒤

쪽을 제외하곤 벌레를 본 적이 거의 없다”며 해충 방지가 잘 이뤄진 어문관의 상태를 설명했다.

반면 △공학관△교양관△후생관과 같이 방충망이 노후화됐거나 부재한 건물은 해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학교 글캠 시설관리팀장은 “현재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 시설관리팀도 인지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부족한 방충망이 해충 유입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다”라며 글캠의 부족한 해충 관리 실태를 인정했다. 또한 “방충망이 부재한 창문을 강의실 이용자가 임의로 여는 경우가 있어 해충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담당 방충망을 설치하긴 어렵다는 것이 시설관리팀의 입장이다. 이어 시설관리팀장은 “오래된 건물의 경우 창틀의 구조가 방충망을 설치하기엔 너무 좁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팀은 현재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설관리팀은 매년 5회에 걸쳐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중이며 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오•폐수 처리장 역시 매년 소독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후 건물들을 하나씩 개축할 것이고 개축된 건물엔 방충망이 설치될 예정이다”고 앞으로의 해충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대응할 것을 전했다. 시설관리팀장은 “시설관리팀에게 손상된 시설이나 말벌집과 같은 경우 문의하면 즉시 대응하겠다”며 학내 구성원의 적극적인 신고를 촉구했다.

해충 문제는 단순히 미관이나 학생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위생과 안전 같은 학생들의 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노후화된 건물의 해충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글캠 내부의 노후건물들이 개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건물 개축 전까진 우리학교 구성원들이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캠퍼스의 위생과 안전을 감시해야 할 때다.

김도현 기자 dohyun07@hufs.ac.kr

후속보도

계속되는 시험 중 부정행위, 이제는 개선됐나?

지난 1008호 기사에선 시험 중 부정행위 문제에 대해 다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기 중간고사 이후 일부 강의의 시험 도중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

는 실정이다.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부정행위 사태의 현황과 피해

최근 우리학교 한 전공 수업의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일부 학생들이 시험시간에 강의자료를 열람한 것이다. 해당 과목 시험은 개인 노트북으로 시험을 응시하는 형태였으나 강의자료를 열람하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일명 ‘오픈 북 시험(Open Book Exam)’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도중 강의자료를 열람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행위 논란이 다수 제기됐다.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당하게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기에 부정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해당 부정행위 적발 이후 적절한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글이 게시되며 파장이 일었다.

학생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 중 하나는 재시험 실시 탓이다. 사태 직후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을 모두 색출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부정행위가 발각된 학생들을 포함해 일괄적으로 오픈북 재시험을 진행하겠다는 수업 공지가 게시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학생들은 재시험이 오픈북으로 진행되는 점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은 별도의 불이익 없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학생들은 에타에 항의성 게시글을 게시하는 동시에 수업 담당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며 이번 사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학생들의 항의를 수용한 해당 과목의 담당 교수는 재시험을 보는 대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실시되는 학생들에 대해 감점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항의는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부정행

위를 저지른 학생들의 정확한 수도 파악되지 않았음은 물론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 어떤 제재나 불이익이 부과될지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정행위의 원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런 논란과 유사하게 에타에선 지속적으로 시험 중 부정행위를 목격했다는 제보글들이 게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계속되는 부정행위의 원인으론 △수업마다 다른 조치△시험 중 관리•감독의 부족△학생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꼽힌다.

우리학교 학칙에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학생은 학생징계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제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 하지만 이번 재시험 사태의 중심이 되는 전공 수업의 경우 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임의적인 후속 조치가 취해졌다.

시험 시간 중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점 역시 부정행위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번에 논란이 된 전공과목의 시험을 치렀던 A 씨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선 종이 시험이나 처음부터 오픈북 시험으로 진행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시험 도중 부정행위에 취약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것을 비판했다. 이어 “개인용 노트북을 가져와 치르는 대면 시험 환경에선 교수 개인이 모든 부정행위를 일일이 감독하기 힘들다”며 “노트북을 통해 오픈북이 아닌 시험을 치를 경우 감독관을 추가로 뒀어야 했다”고 시험 도중 관리와 감독이 불충분했다

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 시험 중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도 비양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행동이며 같이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더 높은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다.

우리학교에선 학칙 제39조 2항에 부정행위로 판정됐을 땐 학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비교적 약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동서대 학교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당해 학기 전후 3과목 성적 무효 처리’라는 강력한 후속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학교에선 앞으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먼저 담당 교수들이 학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처벌 조항을 명시한 학칙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교수의 재량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타 학교의 사례처럼 지금 적용된 학칙보다 더욱 강화된 학칙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와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또한 향후엔 시험 중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학생들이 몰래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정확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험 중 부정행위는 공정하게 노력을 통해 시험을 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면서 시험기간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수△학교△학생 모두 경각심을 갖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김도현 기자 dohyun07@hufs.ac.kr

휴강과 보강, 맞물려 돌아가기 위해선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들은 학칙에 교수의 교습 시간 등을 정해두며 ‘휴강 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이나 우리학교 학칙에서의 휴강 및 보강 관련 세부 실시 규정에선 △보강 계획 제출△보강 일시를 정할 때의 준수 사항△휴강 횟수 제한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

기 위한 세부 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따른 허점이 존재한다. 이에 교수의 자의적인 휴강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다수의 학생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휴강으로 인한 피해 현황△휴강·보강 제도의 미흡한 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휴강으로 인한 피해 현황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선 휴강과 관련된 게시글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개중에선 휴강 여부에 대해 물어보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는 교수의 공지 미흡이 원인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다수의 학생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통학생의 경우 긴 시간을 들여 학교에 왔지만 휴강을 한다는 공지를 당일 수업 시작 직전에 통보받거나 심지어 아예 공지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휴강이 이뤄지는 사유는 교수의 △건강 문제△외부 일정△학회 참여 등으로 다양했다.

지난달 16일 에타엔 수능 문제를 출제하러 간 교수가 휴강을 통보해 이에 관한 학생들의 불만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 또한 동일한 수업이 다수 개설돼 있는 몇몇 과목과 같은 경우엔 별도의 예고도 없이 합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많은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임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외대학보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수능으로 인한 휴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교수의 휴강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학생들은 63.6%에 달했다. 이들은 휴강의 원인이 △교수의 건강 문제(28.6%)△교수의 학회 참여(28.6%)△교수의 수능 문제 출제(14.3%)△교수의 외부 일정(14.3%)△기타(14.3%) 등이라 답했다. 휴강으로 인해 경험한 불편의 유형에 대해선 △공지 부재로 인한 혼란이 생겼다(42.9%)△보강이 없고 녹화 강의로 대체됐다(28.6%)△당일 통보로 인한 강의실로 헛걸음을 했다(14.3%)△기타(14.6%)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에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교수님이 수능 문제 출제로 인해 휴강을 하게 돼 다른 반과 한 달간 합반을 하게 됐다”며 “하지만 교수님마다 수업 방식이나 문제 출제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에 해당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시험에 있어 더 유리한 것 같아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현재 휴강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습권이나 공정성 보장 등과 관련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빈 강의실에서 휴강 공지를 보고 있는 학생의 모습

우 학생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충을 겪게 된다. 휴강 시 교수가 보강 계획을 따로 잡게 되면 보강일에 다른 일정이 있는 학생들에겐 보강 수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한다. 한편 보강을 아예 하지 않는 교수도 있다. 이런 경우 교수의 수업 일수 미달이 발생하게 된다. B 씨는 “400만 원이라는 고가의 등록금을 지불하고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에 오는 것인데도 보강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교수가 수능 문제 출제로 인해 휴강한 사례에 대해 우리학교 재학생 C 씨는 “우리학교가 언어로 유명해서 그런지 수능 시기만 되면 어문학과 교수님들이 수능 문제를 출제하러 가야 해서 휴강하는 경우가 많다”며 “휴강에 대한 보강을 따로 하지 않고 녹화 강의나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 된 적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선영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 총괄 팀장(이하 박 팀장)은 “현재도 규정상론 충분히 휴강시 보강에 대한 지침과 미이행시 불이익처분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강사에게 지속적으로

칙으로 한다”며 “휴강할 경우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한 뒤 휴강과 보강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는 “학점당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서울시립대) 학칙에선 “교원은 담당 강의에 대해 학기당 수업 일수를 준수해야 한다”며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점당 이수 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에 교과별 수업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세대나 서울시립대는 교수의 수업 시간 준수에 관한 조항도 별도로 두고 있다. 이에 덧붙여 연세대는 학생의 강의 이수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이외의 타 대학엔 우리학교와 동일하게 휴강 및 보강 관련 제도가 따로 상세하게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교육 당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학 교수인 D 씨는 “학칙 및 교직원 규정 개정은 특정 주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에 휴강 및 보강 규정을 강화하려면

교육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술대회나 수능 문제 출제와 같이 꼭 필요한 일정은 보장받아야 하지만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하는 것도 교원의 의무다”고 전했다. 휴강 및 보강 규정 강화에 대해 박 팀장은 “수요자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대학의 의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므로 굳이 이를 학칙에 명문화하진 않은 것 같다”며 “휴강 후 보강 계획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캠퍼스 학종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 학칙에 학습권 보장에 대해 상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면 학생대표기구와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우리학교 총학생회 측은 “실제로 지난 학기 융합전공 교수의 잦은 휴강 및 보강 미비에 대한 제보를 받은 후 교무처장과 면담하여 △다음 학기 강의 미편성△보강 수업 업로드△이클래스에서의 공개 사과 등의 조치를 한 후 재임용 과정에 대해 적극 모니터링을 하겠다 밝힌 바 있다”며 “학교 본부에 직접적인 교원 징계 혹은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사람(국제지역·중앙아시아 23)

씨는 “교수님들의 개인 사정도 충분히 이해는 한다”면서도 “그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습권 보장이 확실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휴강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교육 당국의 꾸준한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시점이다.

◆휴강·보강 제도의 미흡한 점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들은 학칙에 교수의 교습 시간 등을 정해두며 “휴강 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무처처무시행세칙 제38조 휴강과 관련한 학칙 현황에 따르면 “교강사가 개인 사정으로 결강을 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보강을 실시한 경우 반드시 보강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강사 및 비전임 교원은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고 전임교원은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한다”고 적혀있다. 다만 해당 학칙에선 교수의 수업 시간 준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휴강 및 보강 관련 세부 실시 규정에 있어 △보강 계획 제출△보강 일시를 정할 때의 준수 사항△휴강 횟수 제한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학칙엔 교수가 휴강함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피해에 대해선 별도의 보장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러한 미흡한 제도로 인해 교수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강할 경

안내하고 있다”며 “학종지가 할 수 있는 점검방식인 전자출결시스템의 모니터링 만으로 한계가 있어 미보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학종지 측 또한 글캠 학종지와 동일한 의견이다. 우리학교 총학생회 측은 “교수에 따라 수업 체계가 달라지는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제보를 받아 교무처와 논의를 통해 해당 교수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학칙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 관련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아 휴강에 따른 피해가 온전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나아가야 할 방향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는 학칙에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수업 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휴강은 시행할 수 없음을 원

주차공간 부족 문제, 개선이 필요한 때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선 주차 문제와 관련해 불편함을 겪는 재학생들의 사례와 의견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늘어난 통학 등의 목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주차공간의 부족과 학교 주

차장 비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학교 주차공간 현황 △우리학교 주차 체계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주차공간 현황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는 본관 부근의 지하 주차장과 교수학습개발원 주차장이 공식적인 주차공간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곳에선 총 634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 더불어 학교 공식행사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엔 운동장이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설캠의 경우 학교 근처의 공용주차장 외에도 △건물·상가 주차장△도로변△주거시설 등이 주차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경우 기숙사와 백년관은 지하 주차장이 있으나 백년관은 교직원 전용이며 △공학관△교양관△도서관△인문경상관△어문관△학생회관△후생관에 지상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어 설캠에 비해 주차공간이 넉넉한 편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도 △교양관△백년관△인문경상관△학생회관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학교 글캠의 주차장 유료화는 지난 2016년 4월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와 함께 시작됐다. 학교 측은 공지를 통해 “행락객과 운전 연습 차량 등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막고 캠퍼스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차료를 징수하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학내 주차시설의 이용 요금은 우리학교 부설 주차장 이용 요금표에 따른다. 설캠 소속 교직원의 주차요금은 1일 1,000원이며 월간 이용 시 10,000원이다. 글캠 소속 교직원 및 명예교수의 경우 1일 주차요금은 1,000원이며 월간 이용 시 5,000원의 금액이 적용된다. 강사는 △월 10,000원 △일 1,000원이며 대학원 및 연수원 소속의 △박사과정△석사과정△연수원은 각각 △주간 월 20,000원△야간 월 15,000원△주간 20,000원△야간 15,000원으로 규정돼 있다. 일반 차량은 △15분 미만△15분 이상~30분 미만△1시간으로 구분돼 각각 △무료△1,500원△3,0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글캠의 경우는 주차장의 위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차 등록 여부와 해당 주차장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료대상 차량으로 △교내 행사 차량△소방차량 및 정부 공공업무 수행차량△쓰레기 수거차량△응급차량△우편물 수발차량△출입기자 차량 △학교 및 법인 공용 차량이 해당한다.

◆우리학교 주차 체계의 문제점

우리학교 설캠의 경우 구 도서관 앞에 존재하던 주차장이 사라지고 현재는 본관 지하에 주차장이 생겼다. 그러나 학내 주차공간 부족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다. 최선우(사회·정외 23) 씨는 “부지가 협소하다는 점에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비용 부담 문제도 함께 거론된다. 주차공간 부족 문제와 더불어 재학생은 정기 주차권을 구매할 수 없기에 외부 주차시설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골목길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실제로 이로 인해 인근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택 시설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학교 근처에 소재한 ‘R’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학생들이 간혹 주민들이 없는 정오와 오후 시간대에 경비원이 휴게시간이나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하고 몰래 주차해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경고 전단을 부착하기도 한다”며 “현재까진 경비원의 재량으로 학생들의 주차를 묵인해주곤 했지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부착되는 경고 전단을 사용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그 밖에도 사회과학관과 도서관 사이 공간 및 캠퍼스를 둘러싼 갭길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나 설캠 도서관 앞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수업 이동 시간대에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외에도 재학생들의 자가용이 설캠 주변의 주택가를 둘러싸 일렬 주차된 형태 역시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글캠의 경우 △기숙사△공학관△교양관△도서관△백년관△인문경상관△어문관△학생회관△후생관에 적어도 1곳 이상이 공식적인 주차공간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차장 이용료는 미등록 차량의 경우 최초 30분은 무료로 적용되고 이후 30분마다 1,000원을 부담하지만 글캠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네이버 양식을 작성한



▲빈자리가 거의 없는 우리학교 설캠 본관 지하주차장 모습

후 상황실에서 스티커를 수령하기만 하면 등록 차량으로 처리돼 연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설캠은 글캠과 달리 교내 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설캠에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학생의 정기권 구매가 불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강사△교직원△대학원생△연수원은 정기권을 구매해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재학생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형우(아시아·이란어 22) 씨는 “학교는 이러한 측면에서 재학생들에게 만족할만한 혜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지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일관되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는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친환경적인 주차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국립 서울대학교는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면제 차량△방문 차량△정기 주차권을 따로 규정해놓았으나 각 부문에 해당하는 구체적 대상을 지정한 것을 넘어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일반차량)△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시부착)△전기자동차에 대해선 50% 할인을 적용하는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더불어 우리학교와 교지 면적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서울시립대학교엔 주차요금의 감면되는 여러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의사상자의 경우엔 80% 할인을 적용한다. 그리고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저공해표시부착)의 경우 50% 할인을 적용해 전기자동차를 학내 주차장에서 충전할 시 1시간 미만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부터 주차요금의 50% 할인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학교 시설관리팀에 따르면 본관 지하 주차장 1층과 2층에 각각 3대와 6대의 전기자동차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고

교수회관과 사이버관 지하 주차장 1층과 2층에 각각 4대와 2대의 주차공간으로 총 15대의 전기자동차 주차공간이 정비돼 있다. 이는 설캠 전체 주차공간 대비 약 2.3%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편 우리학교 동원관리팀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타 대학의 사례처럼 경차와 전기자동차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우리학교 설캠 지하주차장 공간 부족은 여러 원인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의 좁은 부지’다. 우리학교 설캠 부지는 82,291㎡로 서울시내 대학에서 좁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좁은 부지 안에 추가적인 주차장 건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좁은 부지를 가진 만큼 학교 측에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나 포화된 주차장 내 주차공간에 적치물이 존재하거나 주차공간에서 학생들의 자율 활동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공간 부족이 더욱 심화되는 실태다. 우리학교 학생 A 씨는 “종종 본관 지하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서 동아리나 소모임 회합이 진행되는 경우를 목격하곤 했다”고 언급했다. 설캠의 주차 비용은 타 대학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학생들의 불만은 시들지 않고 있다. 학부생들에 대한 주차 정기관 문제의 경우엔 학교의 관련 부처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석대학교(이하 백석대) 서울캠퍼스는 지난해 1학기 대면 수업 수강자에 한해 협소한 캠퍼스의 교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배역 주변 주차장 대학생 할인 혜택을 제시했다. 평일에만 적용되는 혜택이었지만 학교 측에서 주변 상권과 제휴를 한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백석대는 △방배역 노상공영주차장 △방배1동 공영주차장△서초구립중앙로 공영주차장의 시간당 요금을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우리학교의 경우 외대앞역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나 자세한 안내는 따로 없었다.

또한 친환경적인 주차 정책에 의해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부대시설에서 적용돼야 함에도 우리학교에선 미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 대학의 선례는 모두 국공립 대학교의 사례이기에 사립 대학교인 우리학교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엔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학교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제도와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비한다면 사립 대학교로서 친환경적인 주차 문화를 선도하는 모범적 선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것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학교와 학생 간의 적절한 절충과 합의를 통해 해당 문제에 관해 충돌하는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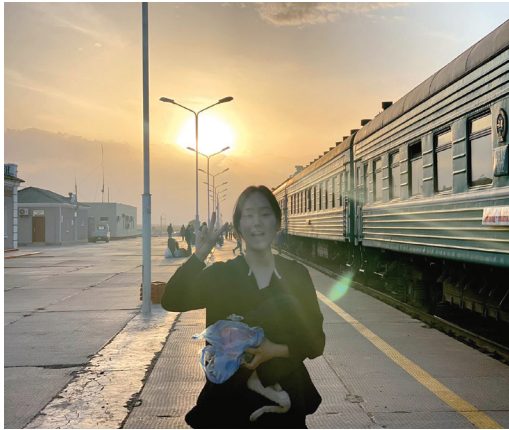
어서 와 해외는 처음이지

험난했던 교환학생을 통한 새로운 가르침

우리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몽골국립대학교'에 다녀왔다. 몽골어는 특수 어이기에 인터넷에서조차 자료가 풍부하지 않고 구글 번역기 음성 합성(TTS)도 지원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교환학생으로서 내 목표는 현지에 방문해 근본적으로 몽골어 실력을 늘리는 것이었다.

몽골에 도착한 순간부터 순탄했던 날은 거의 없었다. 처음 마주한 기숙사 시설부터 몽골의 공기까지 모두 적응하기 힘들었고 가족과 떨어져서 외국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를 정도 올면서 밤을 지새우다 문득 옮기만하다 교환학생을 마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기숙사 밖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와보니 몽골은 인터넷에서 보던 그대로 한국화가 된 모습이었다. 씨유(CU)와 지에스25(SS25) 점포는 100미터 마다 한 개씩 있었고 가까운 거리에 이마트(E-MART)도 있었다.

몽골에서의 수업은 우리나라에서보다 일찍 시작했다. 수업이 늦게 시작하는 날은 오전 9시 20분에 이른 날은 오전 7시 40분에 수업이 시작됐다. 당시 몽골의 아침 기온은 영하 30도 정도였기에 등교부터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그리고 수업은 오로지 몽골어로만 진행됐다. 우리학교 몽골어과 교수님들은 수업 시간에 한국어를 혼용하셨기에 몽골어로만 진행되는 수업



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다. 또한 강의의 내용도 고난도의 용어를 사용해 몽골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이었기에 일주일이나 지나도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 수업이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토로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은 자신이 학생들의 실력을 감안해서 배정한 반이므로 한 달의 유예 기간 이후에도 수업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때 반을 교체해 주겠다고 하셨다. 난 선불리 불평부터 했던 것을 반성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우선 몽골국립대학교 페이스북(Facebook)에 우리나라에 관심 있는 친구를 찾는다는 글을 게시했다. 몽골엔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난 그 중 한 명과 만나 친해지게 됐다. 난 그 친구와 서로 언어 교환을 하며 울란바토르 시내를 돌아다녔다. 이런 과정 끝에 한 달 전보다 실력이 향상된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다양한 행



사를 다녔다. 페이스북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광장 △백화점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는 △박람회 △팝업스토어 △모임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거의 하루에 한 개씩 다양한 행사에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매일 유튜브 쇼츠(YouTube shorts)로 기록해 약 1200여개의 동영상상을 올리기도 했다.

나름 알찬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쉬웠던

점이 있다. 적절한 몽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바로 영어를 써버린 점이다. 만약 그당시에 끝까지 현지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다면 몽골어 실력이 더 늘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교환학생을 가기 전까진 나 자신이 바르게 살고 있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만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기준을 타인에게도 요구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교환학생 이후 이러한 생각이 사뭇 달라진 것 같다. 수많은 외국인을 만나면서 세상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동안 내가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난 교환학생을 통해 느낀 이 귀중한 깨달음을 잊지 않고 열린 사고를 가진 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것이다.

서유리(아시아 • 몽골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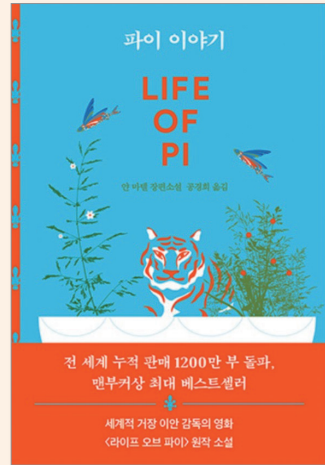


읽어서 세계속으로

캐나다

<라이프 오브 파이>

- 인간과 호랑이의 특별한 항해 여정 -



'라이프 오브 파이(Life of Pi)'는 지난 2001년에 출간된 캐나다의 소설가 얀 마텔(Yann Martel)의 작품이다. 현대문학의 명작 중 하나로 손꼽히며 광범위한 독자와 평단으로부터 큰 찬사를 받은 이 소설은 미국 국립도서상 등 여러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지난 2013년엔 영화로도 제작됐다.

라이프 오브 파이는 주인공 '파이'의 삶을 뜻하는

제목으로 파이가 무한한 대도를 항해하는 배에 남겨지며 벌어진 이야기를 다룬다. 파이는 16세의 인도 소년으로 그의 집안은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인도에서 캐나다로 이주하던 중 배가 침몰하면서 파이는 유일한 생존자로 남는다. 결국 그는 호랑이 한 마리와 구명정에 홀로 남겨진 채 어마어마한 대도를 항해하게 된다.

파이와 호랑이는 처음에 △두려움 △불신 △적대의 관계를 유지한다. 파이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것을 두려워하며 호랑이 역시 인간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생존하기 위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파이는 호랑이에게 먹이와 물을 나눠 주고 호랑이 역시 생존을 위해 파이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파이와 호랑이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깊어지며 서로간의 유대와 이해가 증대된다. 파이는 호랑이의 행동과 언어를 이해하고 호랑이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듯 공생을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관계가 발전된다. 파이와 호랑이의 관계는 이야기의 중요한 상징적 요소로 작용하며 소설은 이들의 긴 여정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통해 생존에 대한 주제를 심도 있게 탐구한다. 이러한 요소는 독자에게 깊은 생각과 감동을 전달하며 라이프 오브 파이를 감동적이고 생각할 거리가 가득한 작품으로 만든다.

라이프 오브 파이는 △동물의 본성 △믿음 △생존 △신앙 △의심 △용기 △인간의 본성 △희망 등에 대한 복잡한 주제를 다룬다. 초반엔 파이의 △생존 전략 △육체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하지만 내용이 전개될수록 파이와 호랑이의 관계 변화가 이야기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된다. 이 소설은 현실과 허구를 섞어 풍부한 상상력을 담아내며 독자들에게 다양한 해석과 생각의 여지를 열어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라이프 오브 파이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쓰인 작품으로 이야기의 독특한 구조와 철학적 측면에서 많은 독자들을 매료시킨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설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살려줄 수 있는 영화가 있어 작품에 대한 여운이 더 길게 남게끔 해준다. 파이와 호랑이와 함께 바다를 항해하며 동화 속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임채린 기자 06chaelin@hufs.ac.kr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 모집일정

학 과 (전 공)	학 위
한국국제지역전략학과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국제지역학석사, 경제학석사

◎ 모집일정

구 분	모집일정
원서작성 및 서류접수	원서작성: 2023. 11. 7(화) ~ 11. 16(목) 서류접수: 2023. 11. 7(화) ~ 11. 17(금)
전형일	2023. 12. 2(토)
합격자 발표	2023. 12. 15(금)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 교수진 초빙
- 나. KOTRA의 통상전략 및 지역통상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지역대학원의 고유가치인 지역학 접목
- 다. 통상환경 + 실무이론 + 지역별 심화 연구를 아우르는 실무 통상 전략이 양성을 목표 (커리큘럼 방향은 추후 변경 가능)
- 라.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별도로 KOTRA 사장 명의의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수료증 수여
- 마. 한국연구재단 HK+(인문한국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 연구조교 기회 제공
- 바. 국제지역연구센터 프로젝트 연구조교 기회 제공
- 사. 신입생 및 재학생 등 각종 장학금 수혜 가능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전산실습실을 둘러싼 문제, 학생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선

우리학교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수업을 위한 전산실습실이 존재한다. 전산실습실에선 각종 수업 및 과제 수행이 이뤄지며 학생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산실습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학교 전산실습실 현황△우리학교 전산실습실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우리학교 전산실습실 현황

전산실습실은 학생들이 컴퓨터를 활용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수업 및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립됐다. 우리학교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멀티플라자(multi plaza)가 존재하며 전산실습실의 경우 대체로 수업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엔 △교수학습개발원△국제관△대학원△법학관△본관△사이버관△사회과학관△인문과학관에 위치한 총 12곳의 전산실습실에 455대의 컴퓨터가 마련돼 있으며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엔 △공학관△백년관△어문학과△인문경상관에 위치한 총 9곳의 전산실습실에 467대의 컴퓨터가 마련돼 있다.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각 전산실습실의 위치에 따른 수업 및 자율적 용도 등 이용 목적이 명시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전산실습실은 수업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며 수업이 부재한 시간대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산실습실의 이용률이 높지만은 않다. 이에 우리학교 디지털서비스팀 측은 “전산실습실 외에도 멀티플라자나 도서관에 위치한 스마트플라자(smart plaza) 등에도 기타 컴퓨터 사용시설이 존재하며 전산실습실에 비해 시설이 깔끔하게 구축돼 있어 학생들의 전산실습실 수요가 적은 편이다”고 언급했다.

우리학교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컴퓨터 시설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대체로 수업 혹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산실습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캠 전산실습실의 일부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IBM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는 통계학 수업이나 설문조사 결과물 작성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통계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비교적 높은 가격대로 학생 개인이 구매하기엔 금전적인 부담이 크기에 대체로 학교에 구비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유료 구독이 필수적인 어도비(Adobe Creative Cloud) 또는 글캠의 이공계열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학 프로그램

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사비로 구매하기엔 금전적으로 부담이 돼 전산실습실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산실습실의 위치를 확인한 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SPSS나 어도비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모든 컴퓨터에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니다. 설캠에 존재하는 455대의 컴퓨터 중 SPSS가 설치된 컴퓨터는 89대에 불과하며 어도비 프로그램의 경우 7대의 컴퓨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 두 가지 프로그램과 △한글△MS Office△O/S와 같은 기본 프로그램 외의 다른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진 않았다. 글캠의 경우 설캠과 달리 모든 컴퓨터에 기본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기본으로 설치돼 있진 않다. 그러나 글캠의 경우 전산실습실을 주로 사용하는 공과대학(이하 공대)이 가동해야 하는 프로그램 수가 설캠보다 방대하기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설치해두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학교 전산실습실은 한 학기 당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시험기간에 학생들이 원활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전 1회씩 정기점검을 거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산실습실의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정보지원처 홈페이지에 기재된 'PC/멀티미디어장비 고장' 부서 측에 연락하면 해당 컴퓨터의 수리가 이뤄진다.

◆우리학교 전산실습실의 문제점

우리학교 전산실습실은 앞서 언급했듯이 설치된 프로그램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리학교 디지털서비스팀에 문의한 결과 설캠의 경우 △기본 프로그램△어도비△SPSS 프로그램 외엔 별도의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조차 일부의 컴퓨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



▲우리학교 전산실습실 명판



▲우리학교 전산실습실 내부 모습

다. 실제로 SPSS의 경우 설캠 전산실습실 전체 컴퓨터 455대 중 89대에만 설치돼 있으며 이는 전체 컴퓨터 수의 약 20%에 불과한 수치다. 어도비 프로그램의 경우 7대의 컴퓨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전산실습실 외에도 스마트플라자에 있는 10대의 컴퓨터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수업에선 SPSS 외에도 Node XL 혹은 AMOS 등과 같은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산실습실의 컴퓨터에 학생이 임의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고 프로그램별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 수 부족 문제는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글캠의 경우 전산실습실 컴퓨터에 별도의 프로그램은 설치 해두진 않았으나 수업시간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업 진행자의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수업시간에 맞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글캠은 설캠과 달리 공대가 존재하기에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의 빈도가 비교적 높아 설캠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그러나 수업시간 내 교수로부터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기에 과제를 수행할 목적으로 전산실습실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에겐 제약이 존재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론 전산실습실을 일반 강의실처럼 예약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산실습실을 이용하기 위해선 학생들이 사전에 해당 실습실의 수업 시간을 확인하고 수업이 없는 시간대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습실 내 수업 진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기에 전산실습실을 방문해도 사용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전산실습실에 예약제가 도입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우리학교 일부 예약시스템의 예약이 누락되는 등 원활한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

다. 이에 손지성(사회·미디어 21) 씨는 “우리학교 시설물 대관 시 일반 강의실이나 행사목적 시설등 상이한 유형의 시설물에 대한 대관을 한 부처가 아닌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스템이 복잡해서 사용하기 불편하다”며 “관리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문의전화를 해도 다른 곳으로 문의하라는 연락을 받아 혼란스러웠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예약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산실습실 예약제 도입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우리학교 설캠 디지털서비스팀 측에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설캠의 전산실습실 내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수 부족 문제에 관해 “수업시간에 필요하다면 요청이 들어올 경우 라이선스(license)를 확인한 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설치해줄 수 있다”며 “학생 개인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수업시간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료 라이선스 사용이 가능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산실습실의 예약제 필요성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멀티플라자나 도서관 스마트플라자를 선호하기에 전산실습실의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글캠 디지털서비스팀 측은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하는 글캠의 공과대학 사정상 컴퓨터에 모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우며 학생 개인의 사적인 목적으로는 프로그램 설치가 불가하다”며 “수업시간에 사용할 용도로 프로그램 설치요청이 들어올 경우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문대학교의 경우 일부 전산실습실을 예약제로 운영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전산실습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운영 좌석 및 컴퓨터 사양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기재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이 사용할 프로그램과 컴퓨터의 가동 여부에 관해서도 사전에 정보를 확보해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의 경우 전산실습실 이용시 별도의 예약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수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뒀다는 점에서 우리학교와 유사한 운영방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설치된 상세 소프트웨어(Software)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컴퓨터의 정확한 운영 체제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컴퓨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SPSS와 어도비 외에도 SAS나 AMOS 등 비교적 많은 수의 프로그램들이 설치돼 있고 SPSS가 설치된 컴퓨터의 수도 우리학교 설캠에 설치된 컴퓨터 수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았다. 비록 우리학교도 멀티플라자와 스마트플라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용 가능한 컴퓨터는 충분히 구비돼 있는 편이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사용에 있어선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산실습실은 학생들의 수업 및 과제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학교 측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입장을 잘 고려해 보다 원활한 전산실습실 이용이 가능하게 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의대 정원 확대, 지속된 갈등 해결을 위해선

현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전국의 의과대학(이하 의대) 입학 정원을 19년 만에 3,058명에서 3,57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학교와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 또한 증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이미 증원 의사 및 규모를 밝힌 의대들의 요구 정원이 600여명에 달하며 이러한 요구 정원의 규모가 전국적으로 1,000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여러 이해관계가 부딪히며 과거부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열띤 논란이 다년간 이어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시행이 임박해져 이에 관한 찬반 입장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 배경△의대정원 찬반 논란△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의대 정원 확대 배경

과거부터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열띤 논의가 꾸준히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업체에서 의대 증원을 논의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에도 현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대거 늘린다고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에 관한 논의가 지속됐다. 이번 논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현안협업체를 통해서만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의대정원 확대 논란은 의사를 제외한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뚜렷한 대립 관계에서 빚어진 갈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에 개최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회의에선 의협과 나머지 민간위원들 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회의에서 의협은 “현존하는 국내 의사의 수는 이미 충분하고 기존의 의사들이 중증 치료와 같은 필수 의료 분야에 근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대 정원을 단기간에 늘릴 경우 교육 여건이 부실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서 필수 및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의사 인력 공급 정책과 필수 의료 인력 유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을 감내하며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는 목적은 의료진 정원 부족 문제 해결에 있다. 의료진 정원 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아과가 그 대표적인 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유소년층이 해마다 확연히 감소했음에도 줄어든 유소년층을 진료할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비단 소아과뿐 아니라 외과와 응급의학과 등 적지 않은 필수 의료 분야의 응급 환자들이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는 사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다. 많은 의대 재학생(이하 의대생)이 수요가 많은 미용이나 성형 분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경민 동아일보 사회정책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의사 수요 증가에 따른 의사 양성에도 게으르고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는 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외면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에 놓였다. 지방에 사는 임산부들이 출산을 위한 진료를 받기 위해 대도시로 올라와 종합병원 근처에서 하숙을 해야 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수도권에 과밀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의대정원 찬반 논란

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의대 정원의 증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료진 정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의료진 부족은 곧 환자들의 진료 대기 장기화로 이어지기에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원인이 된다. 또한 의사들이 대도시로 몰리면 서 특정 지역에 전문의들이 집중돼 있어 의료 자원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다. 이러한 지역 차에 따른 의료 자원 불균형은 해마다 발생하는 응급 환자들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배경이기도 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양동헌 경북대학교 병

원장은 “지역 필수 의료와 중점 의료를 처리하기 위해선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배경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문제도 존재한다. 고령화 사회에선 만성 질환자 수가 증가하고 노화에 따른 심혈관 질환자 수가 증가하기에 심혈관 질환과 같은 필수 의료 전공의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비인기 전공일뿐더러 막중한 책임감이 수반돼 이를 희망하는 의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추가적인 의사를 양성해 이러한 문제를 타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즉 의사의 수를 늘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전국적으로 높은 의료 서비스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전문직 열풍으로 의대 입시 경쟁률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의대 정원이 증원될 경우 의대 입학의 관문이 전보다 넓어지기에 의대 지원을 희망하는 입시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타 공과대학에 재학 중이지만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A 씨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대 입시에 도전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취업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문직을 지망하고 있는 추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대 정원의 증원 확대로 다수의 의사와 의대생은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전국의 의대는 대거 양산된 의대생을 수용하기 어려워져 의대생들의 실습 기회가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대생이 받는 임상 교육의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이는 곧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귀결된다. 또한 이전보다 많아진 의대생을 수용하고 의사로 양성해야 할 교육·의료 기관과 병원의 기반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박대균 순천향대학교 의대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정원이 적은 대학의 경우 교수나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인원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대학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즉 지역 의료 불균형이나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선 단순히 의사를 증원하는 게 능사가 아니며 의료 기반시설과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논지다. 이에 수도권에 한 의대에 재학중인 B 씨는 “의료 인력이 많아지면 병원 인턴이나 레지던트 지원자가 많아져 경쟁이 치열해진다”며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질적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의대 증원 확대는 소위 동네병원 의사인 개원의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개원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그만큼 환자의 분산이 쉽게 이뤄져 개원의들이 위기를 느낄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부진한 수익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네덜란드△미국△일본은 이러한 의사 정원 문제에 관해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를 창설했다. 미국과 네덜란드의 상설 기구는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해 △의사 교육△의사 정원 문제 해결△재정 지원을 다루고 있다. 양

은배 한국교육교육평가원수석부원장(이하 양 부원장)은 교육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 전문가 의견에 근거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조했다. 또한 양 부원장은 “미국과 네덜란드처럼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여건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며 의과대학과 수련기관교육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와 지방 의사 증원을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실효적인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 이에 더해 의대 정원 확대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의료진들을 위한 지원책 도입 또한 병행돼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5년간 수가를 쥐꼬리만큼 인상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초래하고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과 정부 모두 일말의 반성이나 회개도 하지 않는다”며 “나날이 심해지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까지 더해 1차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고 그 책임 또한 건정심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증원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더불어 비인기 전공의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와 관련된 인적 자원이 인기 전공에 몰리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의료진들의 삶의 질과 연관이 있다. 의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전공으로 통하는 △성형외과△안과△피부과를 이른바 ‘피안성’, △영상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를 ‘정재영’이라 부른다. 반면 △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외과는 ‘내외산소’로 비인기 전공을 일컫는다. 인기와 비인기를 나누는 기준은 의사가 수술 도중 의료 분쟁에 휘말려 소송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과 경력 상의 위기를 겪을 가능성에 있다. 언제든 응급 수술이 발생할 수 있고 밤에 당직이 빈번한 필수 의료 전공의들의 경우 삶의 질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유운 대한외과학회 신임 이사장은 “외과의사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체적으로 외과에선 365일 당직을 서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응급수가를 받기 위해 밤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콜(call)을 대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서 근무에 시달리는 외과의들이 더 많다”고 전했다. 더불어 비인기 전공들은 개원을 해도 경영난을 겪기 쉽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점차 필수 의료로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된다. 조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보정심에서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 인력 공급 정책과 필수 의료료의 인력 유입을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증치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 행위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의사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필수 의료 전공 의사들이 의료 분쟁에 휘말렸을 때 기금을 활용해 분쟁 해결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정책 제정이 필요하다.

최근엔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국민건강을 돌보기 위한 간호법의 제정이 검토되고 있다. 간호법의 부재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을 위해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호법과 같이 의료진들을 보호하는 의료진 관련 법의 제정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충돌하는 이 시점에, 현명한 돌파구를 살펴봐야 할 때다.

김나림 기자 07narim@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내년 총선 민심 확인해

지난달 1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제치고 17.15%p 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선거는 다음 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져 시행돼 총선 전초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 기세를 공고히 해 총선에서도 압승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총선 준비 기구를 출범하겠다고 입장을 보였다.

사회 경찰, 전청조 구속영장 신청해

지난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청조(이하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씨의 사기 규모는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는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전 씨는 최근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인 남현희와의 결혼 예정 사실이 공개되며 각종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경제 이번 해 국제 수입, 지난해 보다 50조 적어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국제 수입이 226조6,00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0조9,000억 원 감소한 수입이다. 또한 기재부가 발표한 이번 해 목표 세수인 400조5,000억 원의 66%에 달한다. 그러나 세수 재추계 진도율은 78%로 최근 5년 진도율인 79%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해를 석 달 남겨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며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국제 미·중 정상회담, 곧 개최되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개최될지에 대한 시선이 집중된다. 지난달 26일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존 블링컨(Antony John Blinken)과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는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가졌다. 미국 국무부는 앞으로도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다룰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미·중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원인과 전망은

지난달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가자 지구 분쟁 이후 9년만에 벌어진 전쟁으로 지금까지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세력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

디) 및 일부 중동국가들은 하마스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백승훈 우리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을 만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 알아보자.

백승훈 우리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Q1. 지난 7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발발 원인 및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 변화입니다. 지난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오슬로 협정(Oslo Accords)에서 두 가지 국가 해결법(Two State Solution)에 합의했어요. 이 협약의 골자는 쉽게 말해 팔레스타인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정권 주도 하에 이뤄진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 이후 중동 국가의 주도권이 이스라엘로 넘어갔어요.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경제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평화 협정입니다. 이전에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지지한 중동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에 조금씩 참여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팔레스타인과 하마스가 이를 타개하고자 개전한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안보 공백입니다. 전쟁 발발 전 이스라엘 네타나후 정권은 독단적인 사법 개혁과 정치적 분열로 인해 많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어요. 국가에 반기를 들며 예비군 훈련에 저항하는 상황도 있었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선제 공격을 알아채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Q2.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다수의 국가가 이번 전쟁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며 자국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도 자국을 위한 정책을 하며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의 자위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러시아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국의 경우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의사를 보이며 중동국가에 대한 일종의 견해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한편 이번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습니

Q3. 지난 1973년의 ‘제4차 중동전쟁’과 지난 2014년의 ‘가자 지구 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쟁과는 구분되는 이번 전쟁만의 특수성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게 두 가지 지점이 있어요. 우선 전쟁 초기 하마스의 입장에서 이번 전쟁은 가장 크게 성공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중동전쟁의 경우 이스라엘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팔레스타인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최근 발생한 전쟁에선 하마스가 승기를 잡는 듯이 보였으나 전쟁이 지속될수록 군사전력상 팔레스타인의 인명 피해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참전국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전쟁에선 △시리아△이집트△타른 중동국가의 참전과 금수 조치**가 있었죠.

Q4.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세계적으로 끼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먼저 경제적인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이미 시장은 반응했죠. △금△달러△유가 등 여러 분야를 통틀어 전쟁 전후로 급격한 변화를 보

인 부문이 없습니다. 이는 국제시장이 이번 전쟁을 큰 변수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엔 천연가스 주도국이 관여된 탓에 당시 세계 시장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으나 이번 전쟁 지역인 가자지구는 경제적으로 중요성을 갖춘 지역은 아니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파급력을 갖진 못할 것으로 보여요.

Q4-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중동 지역에 끼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국제정치를 현실정치로 바라봤을 때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중동 국가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의 경우 아브라함 협정에 확정적으로 참여하기 전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했기에 하나의 주도권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가 참여하길 바라기 때문이지요. 전쟁으로 인해 아브라함 협정 추진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지만 결국엔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95년 오슬로 협정에서 추구한 팔레스타인 독립성 인정을 의미하는 두 국가 해법은 다시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5. 지난 27일 국제연합(UN) 본부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휴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하마스는 결의가 즉각 적용되기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양국이 휴전 촉구 결의안에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결의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국의 주체성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선제공격을 당하고 수천 명의 자국민이 생명을 잃고 가자지구에 대한 영토권마저 빼앗긴 상황이라 이스라엘 국민과 지도부는 결의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하마스의 경우 지난 분쟁에 비해 내부 피해도 적고 적국인 이스라엘에 상당한 피해를 줬기에 현 상황에서 전쟁을 마무리하면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결과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Q6. 사우디는 이번 전쟁에 관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Mohammed bin Salman Al Saud) 왕세자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사우디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미국과 사우디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공통적으로 미국과 사우디는 하마스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를 보였죠. 미국이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를 포함시킨 조치는 사우디를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포섭하기 위함일 뿐 아니라 사우디가 금수 조치를 할 경우엔 상황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우디는 네옴시티(NEOM City) 및 사우디 국가 건설사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7.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국민을 인질로 삼는 행위를 벌이며 전쟁 윤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는 하마스의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하마스 내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역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을 되돌아보면 대부분 하마스의 피해가 압도적이었어요. 하마스는 1,4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반면 이스라엘은 14명이 사상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질을 포섭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또한 팔레스타인의 6,000여명이 이스라엘에 정치범으로 수용돼 있어요. 하마스는 이를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이용해 죄가 없는 국민을 구금한 것으로 보고 있기에 인질 협상을 통해 이러한 정치범을 석방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Q8.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엔 △삼성전자△엘지(LG)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끼칠 경제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추측됩니다. 현재에 파견된 기업의 부서는 대부분 기술협력 및 연구개발(R&D) 부서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 부문이 아니에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지역의 한국 기업 수출액은 4,000억 원 가량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지표 역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유의미한 하락이 없다는 점도 이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Q9.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중·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제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정복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저강도 전술이라 불리는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과 슬라이스 전술(Slicing tactics)을 통해 점진적으로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국제법을 준수해 전 세계의 비판적인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전쟁 이후 예상되는 상황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완전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마스를 대신한 정부를 세우는 것인데 현재 서안지구의 압바스(Abbas) 행정부가 대신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제특구 : 외국 자본 유치 등을 위해 법률적 혜택을 준 지역

**금수조치 : 한 국가가 다른 특정 국가에 대해 거래와 교육 등의 통상을 금지하는 행위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내 성장의 이유, 외대학보

대학 입학 후 그 어떤 일도 쉽게 풀린 적이 없던 것 같다. 특히 현재 융합인재학부에 재학 중인 나로선 다양한 과목과 분야를 배워나가는 과정이 벽찬 일상이었다. 외대학보 107기를 모집하는 글을 본 날도 내겐 어김없이 대학 생활에 치인 날 중 하나였다. 학과 공부나 나와 맞지 않다는 생각과 내가 대학에 와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득 안은 채 기숙사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어느 날처럼 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연히 외대학보 107기 수습기자 모집글을 보게 됐다. 마침 그 날이 신청 마감일이라는 걸 본 순간 난 주저 없이 지원서를 접수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운명적인 시작이었다고 회고된다. 무엇이라도 해보자란 마음과 글쓰기에 대한 내 열망을 녹여 낼 수 있는 활동이 되리라는 벅찬 기대로 외대학보에 지원하게 됐다.

첫 제안서 회의를 한 날 난 혼란에 빠졌다. 공동여 준비한 제안서가 반려당하고 새로운 주제를 찾는 과정은 꽤 마음이 아팠다. 첫 기사를 쓴 이래로 몇 주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다.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에 위치한 모든 건물들을 돌아다니면서 낙후된 시설들을 찾아 헤맸다. 발로 뛰는 취재가 이런 것임을 몸소 느끼는 순간이었다. 양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과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 일이었다. 취재뿐만 아니라 기사를 쓰는 과정도 정말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첫 기사가 발행되고 낙후된 시설물이 조금이나마 고쳐지는 모습을 본 순간 내가 그동안 믿어온 글의 힘을 느낄 수 있어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보람찬 경험이기도 했다.

하지만 보람찬 마음 하나만으로 학보 일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다. 평생을 꼼꼼하게 살아오지 못한 내가 글자와 정보를 일일이 신경 쓰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누군가는 내 기사를 읽으며 정보를 얻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기사를 쓰는 매 순간 막중한 책임감이 생기고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사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매년 새로운 주제를 찾고 학보 스타일로 글을 쓰는 것도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학보는 내게 항상 성장의 이유가 되는 것 같다.

학보에 들어와서 종종 들은 말이 있다. 학보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글 스타일을 찾고 또 그 스타일을 잃어선 안된다는 말이다. 난 어릴 적부터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게 항상 즐거웠다. 내 생각과 내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내 방식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은 내가 글을 좋아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학보를 하면서 기사를 쓸수록 내 스타일이 남아 있는 글일까? 내가 학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 잘하고 있나?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때때로 이어졌다. 고민은 끝이 없었다. 어떤 기사를 써야 좋은 기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글을 써야 할까와 같은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나를 심적으로 힘들게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여전히 외대학보는 내 성장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사에 대해 고민하고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난 앞으로도 좋은 기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학우들과 학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사를 위해 주제를 찾아다니며 체계적이고 정확한 기사를 나만의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난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유술 기자

[책 ‘더 로터리’를 읽고] 그림자 뒤의 폭력과 차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어쩌면 처음부터 내재해 있던 것일 수도 있다. 수면 아래 잠재돼 있다가 이제서야 슬그머니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대 표적으로 폭력과 차별이 그러하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상처 입히거나 세상의 구석으로 내몰기도 한다.

셜리 잭슨(Shirley Jackson)의 ‘더 로터리(The Lottery)’에선 공리주의 사상을 따르는 사회가 묘사된다. 작중에선 매년 제비뽑기를 통해 한 명의 희생자를 정한다. 먼저 가구별로 뽑기를 하고 거기서 뽑힌 가족 내에서 희생될 한 명을 최종적으로 뽑는다. 그리고 제비뽑기에 당첨된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생을 마감한다. 이러한 제비뽑기 전통은 마을의 그 누구도 그 기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존속해 왔다. 제비뽑기 종이가 담겨있는 검은색의 상자는 매년 보관 장소가 달라질 정도로 마을 사람들은 상자에 관한 관심이 없다. 오로지 제비뽑기 당첨자를 돌로 죽이는 것만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마을 사람들은 제비뽑기하기 전이나 자신이 희생자가 아닐 땐 다들 이 전통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희생자가 되면 이 전통이 부당하다며 반대하는 모순적인 면모를 보인다. 심지어 제비뽑기가 끝난 뒤 누군가의 아내 혹은 어머니인 사람이 희생자로 선정돼 돌에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조차 이를 방관하거나 같이 돌을 던지기도 한다. 작중에선 “6월에 제비뽑기를 하면 곧 옥수수가 목직해진다”는 말이 나온다. 희생자가 생길 때마다 한 사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람분의 식량이 더 늘어나기에 이러한 전통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한 노인은 전통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마을 사람들이 제비뽑기 전통을 없앤다면 마을이 무너지고 원시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 굳게 믿기도 한다.

우리는 점차 폭력에 대해 면역력이 생기고 있다. 어쩌면 면역력이 생긴 것조차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범죄 사건들에 대한 뉴스를 보며 문제의식만 느낄 뿐 이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지구의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고도 그냥 심드렁하게 넘기기도 한다. 주민들이 던진 돌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증대한 대가가 따르더라도 전통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폭력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만큼 이러한 폭력이 만연해 있는 사회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또 여단가에선 폭력이 싹트고 있을 것이다. 셜리 잭슨은 이러한 폭력의 답습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다수에 속하거나 소수로 지명되지 않기 위해 발악하는 인간으로서의 양면성을 지닌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로도 들린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내재해 있는 인간의 어두운 측면을 발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림자 뒤에 숨어있는 폭력과 차별이 빛 아래로 나오면서 사라지지 않을까. 언젠간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해 본다.

장휘영 기자 07hwio@hufs.ac.kr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고] 광기의 왕국과 그 창조자의 마지막 메시지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살아야 한다.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감독이 수십 년 동안 그린 작품들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항상 우리에게 생동감 넘치는 세상을 보여줬던 미야자키 감독은 신작 ‘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통해 그의 애니메이션 인생의 황혼기를 멋지게 장식했다. 그의 인생을 문환적으로 녹여낸 이 작품은 화려하고 초현실적인 연출과 압도적인 동화 수를 통해 영화의 화면을 멋지게 살려냈다. 이 작품은 마치 실재와 비실재적 세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하게 해주며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함과 동시에 작품의 메시지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전할 수 있게끔 한다.

이 작품은 하야오 감독의 회고록과도 같은 작품으로 그의 삶에 영향을 줬던 사건과 인물들이 영화 안에 녹아있다. 주인공 마히토의 경우 전투기 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 덕분에 전쟁 중에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낀다. 심지어 자신의 부유함 때문에 친구들과 다툼 후 그 분노를 자해라는 방법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또한 작중 마히토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 집착하며 접근하는데 이는 마히토의 현실회피 욕망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실제로 미야자키 감독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업자였고 전쟁을 싫어했던 미야자키 감독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아버지를 ‘전쟁 부역자’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것이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버지의 재력이었다는 모순적인 상황에 스스로 혐오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마히토의 이런 면은 실제 미야자키 감독의 생애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마히토는 새엄마인 나츠코가 이세계로 납치되자 그녀를 구하기 위해 이세계로 발을 옮긴다. 마히토가 들어간 세계는 미야자키 감독의 내면이자 광기의 왕국 혹은 예술가의 이상적인 세계로 마법과 환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마히토는 시간을 이동할 수 있는 문을 통해 화재로 죽은 어머니를 과거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만나기도 한다. 하지만 곧 이세계의 이면이 보이기 시작한다.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새는 창조주에게 잡혀 갇혀버렸고

새들은 말도 할 수 있고 지능도 높아졌지만 나는 법을 잊은 채 식인을 하고 권력을 위해 싸운다. 이세계의 창조주인 큰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세계를 현실 세계와 다른 악의 없는 세계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는 마히토에게 이세계의 창조자 역할을 계승해 달라는 부탁이지만 마히토는 이미 이곳이 수많은 악의로 가득한 거대한 모순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마히토는 자해의 상처를 보여주며 이 상처엔 악의가 담겨있기 때문에 자신은 악의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현실이 전쟁과 갈등으로 참혹하더라도 그곳에서 친구를 만들고 살아갈 것이라며 이세계의 창조주 자릴 거절한다. 큰할아버지가 만든 세계를 지탱하던 돌들은 오만한 영무새 대왕에 의해 부서졌고 이로써 이세계는 무너진다. 탈출을 위해 출구 앞에 선 마히토는 과거에서 온 어린 어머니에게 당신은 불타 죽을 운명이며 살기 위해 자신과 함께 같은 시간대로 나가자고 한다. 하지만 과거에서 온 어머니는 마히토를 낳는 게 훨씬 더 멋진 일이라고 하며 어린 어머니가 왔던 시간대로 돌아가게 된다.

삶을 살다 보면 견딜 수 없는 슬픔과 혐오감이 올 때도 있다. 하지만 마히토는 이제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는 이제 완벽한 세상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자신의 슬픈 운명을 알고도 마히토라는 기쁨을 위해 현실을 수용하고 자신의 시간대로 돌아가 인생을 살아가는 선택을 한 어머니의 결의 또한 봤다. 마히토는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기적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하야오 감독이 자신의 세계인 ‘광기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얻은 인생의 교훈이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모두 보여줬다. 미야자키 감독은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는 이 영화를 통해 다음 세대인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대들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김도현 기자 dohyun07@hufs.ac.kr

1084호 학보를 읽고

더 나아가기 위해선

많은 학우들이 열정적으로 중간고사를 치르고 한껏 편안해진 마음으로 여유롭게 이번 달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다. 한편 외대학보에선 학생들을 위해 끊임없이 학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외대학보 1084호에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학내 사안을 다뤘다.

3편의 준기획에선 우리학교의 불명확한 유고결석 기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학교의 유고결석 인정 범위는 비교적 협소하며 유고결석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예비군 사유를 제외하면 교수의 재량에 달려있어 학생들의 불만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선 유고결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3편의 후속보도에선 우리학교 족보 확산 실태를 조망함으로써 족보 공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족보 거래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족보의 공개로 인해 성적 평가에 있어 형평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학교 측에선 족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족보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4편에선 졸업을 위해 사실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인 이중·부전공 제도의 하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수강신청 기간에 극명히 드러난다. 본전공생은 이중·부전공생의 유입으로 인해 필수 강의를 신청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일부 이중·부전공생의 경우 수강정정 기간에

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일부 학과의 방침으로 인해 학점 이수에 많은 고충을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중·부전공생 전용 강의가 개설되지 않는 학과의 경우 본전공생과 이중·부전공생 간의 실력 격차로 인해 이중·부전공생이 경험하는 성적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더불어 이중전공 변경 횟수 제한으로 인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고충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 힘겹게 이중·부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상황이다. 우리학교가 이중·부전공 제도의 하점을 개선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

7편에선 도서관 자료의 훼손과 연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고액의 훼손 행위에 대한 제재는 거의 불가능하고 연체료 또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기에 이와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 자료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재와 규제 마련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노력과 배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외대학보 1084호에선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우리학교의 문제들을 재조명했다. 끊임없이 학내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외대학보 기자들의 노고를 새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우들이 함께 학내 사안에 관해 고민한다면 보다 나은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엄성희(중국어 · 중언문 21)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84호 학보를 읽고

모든 일엔 마무리가 중요한 법

2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것 같지만 벌써 중간고사가 끝나고 학기의 반이 지나갔다. 가을의 선선한 기운이 겨울의 추운 기운으로 바뀌어 옷을 두껍게 입고 나가 몸을 따뜻하게 만든다. 하지만 두꺼운 옷도 소용없을 만큼 학생들의 마음은 아직도 춥기만 하다. 지난 외대학보 1084호에선 그동안 학내 제도에 존재하는 하점을 낱알이 싹터냈다.

3편의 준기획에선 유고 결석 기준에 대해 다뤘다. 현재 우리학교의 유고 결석 제도에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예비군 사유를 제외한 모든 사유의 인정 여부는 교수의 재량에 달려있기에 모호성 문제가 지속되며 생리공결 제도가 악용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유고 결석에 대한 제도를 명확히 하고 유고 결석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3편의 후속보도에선 족보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족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크게 공정성 훼손과 저작권 위반이 있다. 기존과 유사한 형식으로 교수가 시험을 출제하는 경우 족보로 인해 학생들 사이의 불공정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족보의 유출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기에 발각될 경우 만·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교 측에서 기출문제 공개 등 족보 관련 제도를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

4편에선 이중·부전공 제도의 하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이중전공 42학점 혹은 부전공 21학점을 필수

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학과에서 강의 좌석이 수강 인원 수에 비해 적어 제대로 수강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중전공 변경횟수가 1회로 제한돼 있다는 점과 변경할 경우 미달 여석 범위 내에서 변경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학교는 수강 인원을 늘리는 등 학교에서 적절한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5편에선 공공인재개발원(이하 공개원)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공개원에 속한 인원 수의 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 적음△실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캠퍼스 간의 공개원 규모의 격차 등의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학교 측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7편에선 도서관 자료의 손실과 연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자료 훼손으로 인해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경험하지만 훼손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져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고가의 책 구입보다 연체료가 더 적다는 이유로 연체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 측에선 전자 자료 비중의 확대 등 여러 가지 해결책을 검토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학기의 반환점이 돌아왔다. 길었던 이번 해도 2달만 지나면 저물게 된다. 다음 해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교측의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협력해 보다 발전된 학교를 향해 도약할 때다

염재민(통번역 · 독일어 20)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국 · 부장 고정칼럼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

일교차가 커지면서 캠퍼스 내에 따뜻하면서도 찬 기운이 함께 감도는 듯하다. 기본 좋게 선선했던 날씨 덕에 교정에선 중간고사가 끝나 학생들이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는 풍경이 펼쳐진다. 한편 곱게 물든 단풍잎을 보면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돼 팬스레 마음이 허해지기도 한다. 남은 시간을 더욱 알차게 보낼 것을 다짐할 뿐이다.

이번 1085호에선 우리학교와 사회 내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됐던 사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명했다. 현재 우리학교 학칙엔 여전히 허점이 존재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휴강 및 보강 관련 세부 실시 규정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고충을 겪고 있다. 교수의 △개인 사정△외부 일정 △학회 참여 등으로 인해 휴강이 이뤄지게 되면 추후에 발생하는 불편함은 고스란히 학생의 몫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시험 도중 부정행위에 관련된 학칙은 구체적이지 못해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원만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학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임의적인 후속 조치와 시험 도중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저지른 학생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소홀했던 점 역시 부정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해당 사안들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학교 측의 학칙 개정 및 대안 마련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리학교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간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 우리학교 주차공간은 △공간 부족△비용 해택 미비△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불비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특히 서울캠퍼스의 경우 좁은 부지와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두드러지게 대두된다. 컴퓨터를 활용해야 하는 수업 및 학습을 위한 공간인 전산실습실에선 실습실 사용과 활용가능한 컴퓨터 및 프로그램 수 등에 제약이 있어 학생들이 불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학내 공간이 학교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공간 이용에 대한 학교와 학생 사이의 적절한 타협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외대학보 기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비판적이고 날카롭게 분석하면서 항상 정론직필에 힘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실을 넘어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설 새 없이 소통하고 고민하며 발전을 도모하기도 한다. 그렇게 매호 발간되는 신문은 공력의 산물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무엇보다 지속되는 문제에 대한 독자의 관심과 역할수행이 수반돼야 비로소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외대학보는 늘 학생과 학교 당국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기를 기대한다.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점이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외대학보 기자들은 끊임없이 공리하며 노력한다. 작고 큰 파도가 일렁이며 학내 사회를 침체시켜도 외대학보는 학내 구성원이 파도 속에서 모두 온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할 것이다.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

정연아 부장 06znchung@hufs.ac.kr



부엉이 메신저



거기 외대학우분! 이걸 보신다면 목요일 1시반 잔디광장에 와주세요...! 재밌는 일이 있을 예정이에요. 기대해주세요.

-익명-

일대 23 화이팅! 마지막까지 즐거운 1학년되길 빨리 일본가고 싶다—

-진강희-

학교에 군복한지도 어느덧 1년!! 은행나무이 떨어진 거리를 본관을 보며 멍하니 걷는게 그렇게 낭만적일수가 없더라 올해 마지막까지 Time 동아리 또 외대합창단 잘 마무리해보자고 화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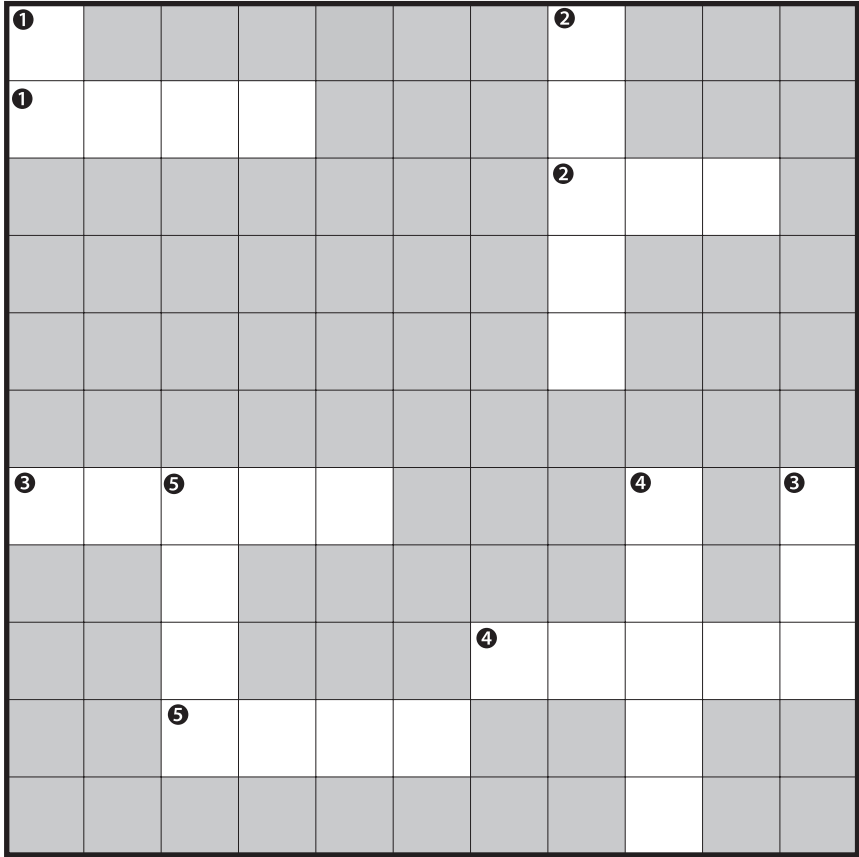
-채유민-

제로베이스원 11월 6일 컴백! crush와 가시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중의적 제목의 타이틀 곡이 기대됩니다~!

-익명-



십자말풀이



가로

- 하마스가 ○○○○을 상대로 선재공격을 감행한 전쟁으로 인해 지금까지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9면 참조)
- 휴강으로 인해 학생들은 ○○○ 보강과 관련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4면 참조)
- 현재 ○○○○○에 따라 대학들은 학칙에 교수의 교수 시간 등을 정해두며 “휴강 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면 참조)
-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배경 중 하나인 ○○ ○○○문제는 만성 질환자 수가 증가하고 노화에 따른 심혈관 질환자 수가 증가한다는 점이 있다. (8면 참조)
- 를 현실정치로 바라봤을 때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중동 국가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9면 참조)

세로

- 부정행위의 원인 중 하나인 도덕적 ○○는 비양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행동이며 같이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3면 참조)
- 에는 대체로 수업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며 학생들이 컴퓨터를 활용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수업 및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립된 공간이다. (7면 참조)
- 우리 학교는 엘지 유폴러스와 글로벌 메타버스 생태계 ○○○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면 참조)
- 우리학교는 주한 폴란드 대사관과 공동으로 폴란드 ○○○○○ 민족 예술단을 초청해 공연을 개최했다. (2면 참조)
- 휴강 및 보강 관련 제도가 따로 상세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4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사설

평생교육과 대학의 가능성

최근 집으로 배달된 책을 한 권 받았다. 파랑색 표지가 예쁜 시집이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단정하게 한 줄로 적혀 있지만 그 마음은 넉넉히 받았다. 이 분은 시민대학에서 내 수업을 여러 해 들으신 분. 은퇴 후 시민대학 인문학 수업을 받으며 시인이 되고 싶었던 젊은 날의 꿈을 지퍼 결국 시인이 되셨다. 벌써 두 번째 시집이다. 책을 펼쳐 본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바라보는 일상의 풍경과 마음 풍경이 잘 어우러진 고운 시들. ‘오늘의 다짐’이란 시에서 화자는 관악산 아래 개울에 발을 담근다. 하늘을 떠가는 구름이 되고 바람이 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렇게 되린다. “오늘의 다짐은 이 온전한 마음을 / 집에게까지 가져가는 것이다.”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고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학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만 가르치는 시점은 지나갔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문을 닫는 대학이 속출할 거라는 예상 앞에서 대학은 저마다 생존의 방식을 고민한다.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전공과 교육과정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사회에 나갈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회를 찾아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은 현실, 이들을 모두 막을 수도 없기에 줄어든 학생, 줄어든 등록금 수입에 대학들은 저마다 힘들다. 새로운 재정 사업을 시도하지만 교육부의 맞춤형 기획에 학교를 온전히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

대학의 다른 가능성을 나는 평생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대학은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학연계 시민대학에 참여해왔다. 당시 서울시에서 대학연계시민대학의 큰 그림을 그린 분이 내게 우리대학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해 왔을 때, 나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기획안을 냈다. 서울시와 MOU를 맺을 때, 수준 높은 인문학 교육을 해달라고 특별히 당부받은 기억도 난다.

이미 먼저 시작한 대학들이 자리를 잡은 상태였기에 처음 시민대학을 시작할 때는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여러 해 정성들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결과, 서울 시내 참여대학 중에 만족도 1위를 여러 해 연이어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석자들은 주로 은퇴하신 분들이었는데, 대학교수에서부터 교사, 회사원, 주부, 귀족한 해외 교포 등 다양했다. 간혹 청년이 눈에 띄기도 했는데, 우리 학교 학생이, 혹은 대학을 그만 둔 청년이 프로그램이 재밌어 보여 찾아왔다고 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학교에 대한 홍보를 매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가까이 살면서도 우리대학이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몰랐는데 시민대학을 들으며 학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자기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내고 싶다 하신 분이 계셨고, 춘천에서, 분당에서 멀리서 기차와 전철을 타고 수업 들으러 오신 분들도 있었다.

대학연계시민대학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진행된 평생교육과 차별화된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개 평생교육은 재테크나 부동산 운영 등 실용적인 프로그램 혹은 직업훈련 교육이 중심이 된다. 하지만 ‘세계시민’을 주제로 잡아 수준 높은 인문학과 문화 융합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시민들의 높은 학구열에 잘 부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50대나 60대에 은퇴한 시민들에게 과거의 패러다임 그대로 단선적인 직업교육 중심의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 시민들의 높은 지적 수준에 맞추어 역사와 문화를 두루 살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 후 시민들이 그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묵밭랐던 지적인 욕구를 채워준다면 평생교육이 대학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변화하는 시대를 바라보는 일, 기후위기 앞의 세계, 전쟁과 난민, 세계시민, 문화와 연계된 고전 읽기 등은 학부 학생들에게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그때의 시민들은 아직도 내게 연락을 하신다. 거기서 배운 힘으로 시인이 되었다고 하고, 거기서 배운 힘으로 늙음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며 공부하는 삶을 이어간다고 한다. 보내주신 시집을 읽으며 평생교육의 보람과 의미를 생각한다. 그분이 시인이 된 건 내 덕분이 아니라 그분의 역량과 노력 덕분이겠지만, 은퇴 후 꿈을 꿀 수 있는 씨앗을 시민대학에서 뿌린 것은 맞으니 내가 함께 기뻐해도 좋으리라. ‘온전한 마음’으로 살게 하는 힘. 평생교육은 분명 대학의 또 다른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정은귀(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시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곤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5subi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
편집장 조수빈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법률 종목의 다재다능한 선수

김미경 변호사를 만나다

김미경(서양어·스페인어 01)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는 지난 2008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현재 법무법인 케이씨엘(KCL)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뇌물 및 배임 사건△무고 사건△보험소송△상속소송△채용 비리 사건 등 민·형사를 넘나드는 여러 영역의 소송을 담당했다. 이외에도 김 변호사는 여러 기관에서 법률상담 및 자문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법률 종목의 다재다능한 선수 김 변호사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스페인어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특별히 스페인어에 관심이 있어서 스페인어과를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관심이 있던 학과는 법학과였어요.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법학과 진학을 포기하게 돼 가장 유망한 언어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어를 배우고자 다짐하게 됐죠. 이에 따라 당시 '서반아어과'였던 지금의 스페인어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Q2. 우리학교 재학 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1·2학년 땐 전공어인 스페인어 공부에 열중하면서 재밌게 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던 중 2학년이 끝날 무렵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다시 생겨 사법고시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에 따라 학과 역시 옮기고 싶었지만 우리학교를 떠나고 싶진 않았기에 처음엔 우리학교 법학과로의 전과를 희망했죠. 이미 2학년을 수료한 전 전과를 신청할 수 없었기에 자퇴 후 우리학교 법학과로 편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합격하지 못해 재입학한 후 사법고시 공부에 치열히 몰두했어요. 그 덕에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법조인의 꿈을 성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Q3. 변호사란 꿈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듯 불의가 벌어지는 순간을 목도할 때마다 가해자를 처벌해 정의를 구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 그 일환으로 처음엔 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서 검사 직무대리로 재직하면서 꿈이 변호사로 바뀌게 됐어요. 연수원생은 검사 직무대리 업무를 통해 검사 업무를 간접적으로 수행해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대질 심문을 직접 진행하면서 피의자들에게 왠지 모를 측은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그들 역시 나름의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를 계기로 변호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주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게 된 것 같아요.

Q4. △건설소송△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사건을 담당했는데 그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청소업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건물 청소 중 뇌질환으로 쓰러진 것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해당 사건은 당시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제가 이를 2심에서 수임해 △당시 업무량△의뢰인의 업무형태△해당 뇌질환의 성격 등을 치밀하게 입증하고 주장하면서 결국 원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를 얻어냈죠. 이 사건이 제겐 가장 기억에 납니다.

Q5. 변호사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을 맡은 경험도 물론 기억에 남지만 그보다 저와 가까운 사람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 이들을 위해 변론할 수 있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변호사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기도 해요.

Q5-1.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겪은 고충과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사건을 수임한 경우 처음엔 당연히 의뢰인을 믿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 중에 의뢰인의 거짓말을 눈치챌 때가 가끔 있죠. 그런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및 변제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는데 이러한 전략으로 재판에서 감형을 이끌었던 것이 고충을 극복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6. 변호사 생활을 하며 △강남구계약심의회원△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위원회△경기주택도시공사 인사위원회 위원△동작구투자심사위원회 위원△사법시험 검토위원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의 경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이 변호사로서의 생활이나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대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그러나 공공분야에선 한쪽 입장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양쪽 입장을 고루 수용하고 판단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돼요. 그리고 이를 통해 시야를 확장하는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분야의 활동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Q7. 변호사로서 가져야 할 자질이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자질로 '잘 말하는 것'을 꼽으시지만 전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론 방향과 쟁점이 드러나기 위해선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이는 까다로운 작업이기에 현직 변호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Q8.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의뢰인에 대한 선임권을 갖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형사 사건의 경우 명백히 피고인의 진술이 일견 허무맹랑해 보이더라도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에 있는 예시를 소개해볼게요. 제가 시험을 보는 와중에 제 뒷자리에 앉은 친구가 제 앞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시험지를 던졌고 그 때 마침 우연히 제 펜이 떨어져 제가 그 펜을 줌으로써 고개를 숙인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 바로 앞에 그 시험지가 떨어졌고 시험지를 던진 친구는 자신의 친구를 지키기 위해 제게 던지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거죠. 모든 정황과 증거가 저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이처럼 억울하게 범인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의뢰인을 신뢰하지 않고 예단을 갖고 접견을 진행하면 그 사람의 누명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제가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Q9. 업무를 마친 후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외국어 공부를 하며 여가시간을 보냅니다. 원래는 영어를 공부하다 요즘엔 중국어도 같이 공부하고 있죠. 다양한 언어를 많이 구사할 줄 아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주로 외국 드라마 시청을 통해 외국어를 공부합니다. 해당 나라의 언어로 된 영상물을 계속 시청하다 보면 작품에서 나온 대사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더라고요.

Q10. 앞으로 이루고 싶은 계획 및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좋은 법률사무소를 만들어서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무료 변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Q11. 변호사를 꿈꾸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를 꿈꾸는 여러분들은 이전처럼 사법시험을 거쳐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진학과 변호사 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법률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활동이 궁극적으로 변호사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종류를 막론하고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충실히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